은혜로 말씀 묵상

4월7일.수요일.

묵상말씀. 시편6편 8절~10절.

8.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9.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떪이여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묵상제목:'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벌을 받고 있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견뎌내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3절) 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에 담긴 시인의 애통한 심정과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견뎌내고 있는 고통의 크기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따르면서 지금의 고통이 곧 끝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지는 확신과 소망 그리고 용기는 하나님께 삶의 문제와 고통을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관계, 약속의 관계 안에 시인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우쳤기에 이뤄진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만족에서 비롯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 그 관계에서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상황의 반전이 '아직'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여호와께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새로운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게 함을 깨우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간구와 호소에 대한 응답이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사랑과 은혜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확신과 소망 그리고 용기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기도합니다.

한줄 기도.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